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개역, 이사야 40:1-17]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외치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끝내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히스기야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곧 위기의 때가 닥쳐오는 때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1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경고하다가 40장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 하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나라가 망해서 외적의 포로로 잡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구원해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경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가 40장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선포를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참 웃기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은 앗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앗수르를 피해서 멀리 쫓겨나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사야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 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준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대에 필요한 말씀이면서 후일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먼 훗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 장래에까지 미칠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보라’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4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 느낌을 잘 살려

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음률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표현을 원어의 맛을 살린다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런 식입니다.

헨델이 쓴 메시아는 전체가 53곡입니다. 다 연주하려면 아마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53곡이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합창곡 할렐루야가 유명세를 타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합창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53곡 중에 전주를 빼고 2번, 3번, 4번 세 곡이 여기 1절에서 5절 가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첫 번째 곡은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인데 여기 성경구절을 그대로 따 왔습니다. 두 번째 곡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라’입니다.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들은 꺾여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곡은 ‘그리하면 그 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런 가사로 즉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곡일 뿐 아니라 가사를 성경 곳곳에서 뽑아내서 복음을 잘 정돈했기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대단한 곡의 처음 세 곡 가사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은 이 40장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40장을 특별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구약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을 흔히 1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징계와 심판이 반복되다가 2부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용히 시를 읽는다는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을 담뱃 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해도 해도 안되니 결국은 징계를 가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징계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고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를 들어야 하며 왜 징계를 해야 하는지, 또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얼마나 다정하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낸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못한 자식을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만기 출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악을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다는 것은 그만하면 하나님께 받을 징계를 충분하게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죽을 일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오라는 애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을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러내면서 ‘만기 출소했으니 이제 집낼 것 없다. 그리고 그만하면 충분하게 벌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불러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은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대로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길을 닦으라는 거죠. 무

슨 길입니까? 대로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무엇에 필요한 대로입니까? 바벨론에서 놓여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 백성들이 빠르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얘기죠.

내 백성이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닦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로를 동행할 자들이 누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우어져서 평지가 되라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돌아오기에 전혀 장애가 없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면, 없던 곳에 길이 생깁니다. 없던 나무도 생깁니다.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임금님이 간다고 하는 길에 나무가 그리 없었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로 나무가 쭉 생겨납니다. 며칠 만에 웬 나무입니까? 다른 데 있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서 심은 겁니다. 며칠 뒤에 전부 말라 죽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인 임금님이 지나가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길을 낼 뿐만 아니라 주변을 치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데 길이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대로를 닦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별로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릉 가는 버스는 1박 2일로 갔습니다. 지금도 가다보면 옛길이 보입니다. 가다가 양쪽에서 차가 마주치면 한 대는 하염없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서 저만치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가 겨우 빠져 나가고, 가다가 펑크 나면 쉬면서 고쳐서 가지요. 어디서 자는지도 예정이 없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거죠. 지금 저렇게 잘 빠진 도로 옆에 작은 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 넓은 길이 얼마나 멋진 길인지 감동이 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8시차 몇 시에 가요?" 당연히 8시에 가지요? 지금은 우스갯소리겠지만 옛날에는 8시 차가 8시에 안 가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 백성이 돌아오는데 길을 닦으라'는 말씀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이 길은 장애물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높은 산? 낮아지라는 겁니다. 골짜기? 메워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마저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털끝만큼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까지 막힘이 없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 길에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난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나왔습니다. 그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재연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스겔서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에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행렬, 이 놀라운 광경은 장차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행렬에 동참하여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사람은 '야 대단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와 기원이 그 위에 붉이라' 풀

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꼭 붙어버렸더니 다 말라버렸더라? 이진 말이 안되는 얘기죠? 여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버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더라? 이 풀과 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붙잡고 압제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마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행렬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기뻐하며 감격해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깨끗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답게 행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렬 뒤에서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듯 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듯해 보이는 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스라엘은 대답할 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는 것은 ‘봐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치던 너희는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풀과 꽃은 일차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마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잘 나가던 그 모든 권세가 마르고 시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다 알고 계셨던 구절이죠? 멀리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본문 조금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쓰러질 듯 쓰러질 듯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처럼 차고 오를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백성을 학대하던 그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갈 것 같던 그 아름다운 영화와 권력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모습이 별로 남에게 자랑하지도 못하고 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넓은 도로로 거침없이 달려 나갑니다. 반면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은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열심히 외치던 광야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대로에 하나님께서 앞장 서시고 많은 백성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던 너희가 이제 뭘 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봐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 이 광야의 소리가 외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이 시기에 그렇니까?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정말 강한 힘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 되면 다시는 포로생활이 없는 겁니다. 다시는 외적

에게 휘둘러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상급과 보응입니다.

매를 들고 다스린다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매가 아닌 상급과 보응, 선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 같으면 거기만 눈이 팔려 있겠지요.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멀리 갔다 돌아와도 얼굴 안 쳐다 봅니다. 손에 뭐 들고 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응과 상급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어린 양을 품에 품고 돌아오는 목자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양은 아무 생각이 없이 목자만 따라갑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앞장 서서 가시는 모습을 말없이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안 따라가겠다고 버티다가 엉뚱한 길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갔던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품에 안고 목자처럼 돌아오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12절부터는 얘기가 조금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가’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겠느냐는 것이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헤아린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아니 뿔으로 하늘을 재어 본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리 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리로 이끌고 오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했는데 누가 막겠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도무지 없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감격하더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변동시킬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온순하게 양을 품에 품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심지어 15절을 보세요. ‘보라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원래는 가득 찬 통이었는데 다 붓고 난 다음 끝에 한 방울 붙은 겁니다. 끝에 남은 한 방울,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들, 온 세상의 나라들이 대단하다고 그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통에 남아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순한 목자처럼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저의가 뭘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정말 온순한 목자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대조를 잘 이루고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대한 행렬입니다. 그 행렬 뒤편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인도하시는 선하디 선한 목자처럼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에게는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16절에,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이 숲이 울창하고 짐승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바논의 짐승을 다 잡아 와 봐라 되는가? 레바논의 삼림을 다 베어와 봐라 하나님께 드릴만한 제사에 장작으로 쓸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에는 레바논의 그 많은 짐승도 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장작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 드리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너희로서는 안되니 내가 제물을 준비하였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봉사, 전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삼림의 짐승이라도 다 가져와 봐라, 번제에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제물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돌아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는 레바논의 짐승을 다 가져와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분이여야 합니다. 내일 당장 오신다면 기꺼이 맞으러 뛰어가야 합니다. 연기 신청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홍수 심판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다시는 이런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서라도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종으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야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야단 맞으려면 얼마나 맞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향하여 정말 매 들고 두들긴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있는 것 같다 그죠? 사탄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때를 제외하고 그렇게 정신나간 열두 제자들을 향하여 매를 들거나 야단치거나 징계한 적이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장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잤아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졸고 잤느냐?'고 하신 것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한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건데 그죠? 예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에 경고를 거듭해도 도저히 안되니 할 수 없이 징계를 하셨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회복을 노래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